

八、타작하고

九、기생(妓生)방에 반단 나고

一〇、밭갈고 부종(付種 씨뿌림)하는 모양

一一、망건(網巾) 장인(匠人)

一二、자장의

× 一三、An Official on a Journey(筆者藏本에 亡失돼 있어 英譯 그대

로 적어 본다)

× 一四、장가가고(新郎가는 모습)

× 一五、신부 신랑 초례(醮禮)하고

× 一六、훈장(訓長, 教師) 글 가르치고(書堂風景)

一七、매사냥 가고(이것은 이 책 表紙에 金泊으로 박아 놓았다)

× 一八、Playing a Comedy (一三과 同樣)

× 一九、행상(行喪)하는 모양(喪輿와 喪輿軍)

二〇、중(僧) 수륙(水陸)하는 모양(水陸齋光景)

이 以外에도 韓國에 關한 歐美的 著作속에는 韓國을 紹介하기 위한 風俗畫가 插入되는 例를 꽤 볼 수 있는데 一九四七年에 刊行된 Frances Carpenter 女史의 「韓國할머니의 얘기」(Tales of a Korean Grandmother, N.Y.)에 더 많이 記入 있는데 그 그림이 一八八八年에 처음 韓國을 찾은 女史의 父親되던 Frank G. Carpenter가 韓國人에게 그려진 것에서 轉載한 것이나 그 中에는 좀 나은 솜씨와 아주 拙한 것이 섞여 있어 있고 描寫한 品이 Cavendish의 것에 比해 粗雜하나 人物이 못나게 그려진 것과는 초리와 이마 등이 全혀 變化가 없이 한 類型을 이루고 있는데 一面 拙한 作品은 Carpenter의 것, Cavendish의 것과 類似한데서 매우 興趣를 돋우기는 하나 Carpenter의 것이 어떤 原畫에서의 部分的인 轉寫임에서 같은 時代의 그림이지만 原畫와의 對照없이는 論하기 어려운 데서 이러한 것이 世間에 流布되고 있음을 紹介하는데 그친다.

羅·麗의 紋樣博 三例

黃 壽 永

百濟의 畫紋方博 八種은 上古의 貴重한 遺品이거니와 新羅統一期에 들어서 더욱 많은 方形 또는 長方形의 紋樣博이 만들어졌고 彫飾의 華麗함도 加增되었다. 이곳에 紹介하려는 三例는 모두 都邑地가 아니라 地方에 分布된 山地伽藍에서 近年에 筆者가 直接 調査한 것이다.

(1) 桐華寺 金堂庵(極樂殿)綠釉方博

方一邊 二〇·八cm 厚 四·八cm의 小品으로서 佛壇周圍에 敷設되었던 것인데 無紋이며 表面에만 綠釉를 바르고 있다. 年代는 西紀九世紀頃으로 推定되는 바 土質은 淡赤色이며 精密하고 背面은 內彎되고 있다(慶州博物館陳列)。

(2) 慶南 咸陽 馬川面 德田里 德峯寺址出土 方博(圖版上)

無釉方博으로서 一邊約 二八·五cm, 厚 四cm인데 中央에 大形의 子房을 보이는 重瓣蓮花紋이 있고 周邊에는 雲文을 刻하였는데 彫線은 鈍厚하며 色澤은 灰黑色 土質은 粗雜하다.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現地의 德川國民學校藏)。

(3) 慶南 晉陽郡 二班城面 龍岩寺址出土 綠釉博(圖版下)

一九五九年 二月 이 寺址에 殘存하는 塔碑等 石物調査時 多數의 有紋瓦博中에서 特別히 注目된 것인데 大小十五의 破片의 收拾되었다. 一邊 二四cm 厚 四cm의 方形인데 淡綠釉가 火傷되어 銀灰色을 보인다. 紋樣은 中央에 重圈突起가 있고 그 周邊에는 작은 蓮花紋이 둘러있으며 다시 外周에는 細長한 花葉紋이 浮彫되었을 뿐 四隅는 無紋이다. 이같은 綠釉博은 일찌기 開城 興王寺址誌의 一殿址에서 採集된 바 있는데 (3)例와 같이 僻地의 伽藍에서도 使用되었던 事實은 記錄되어야 할 것이다. 年代는 高麗中期以前으로 推定되었다.

〔註〕拙稿『高麗興王寺址의 調査』(白博士紀念佛敎學論文集)에 圖版收錄)

紹修書院 講堂 上樑記

尹 武 炳

一九五八年 가을 紹修書院 講堂을 修理하였을 때 中央 마루道理에 墨書한 다음과 같은 上樑記가 發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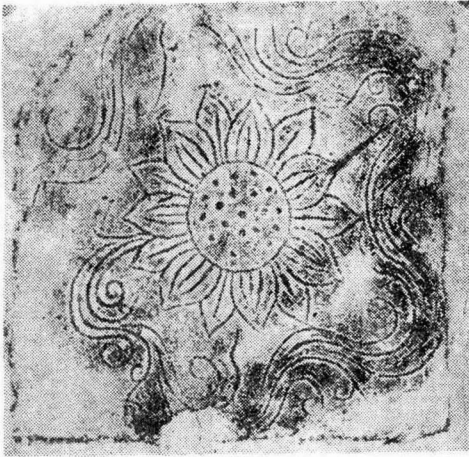
壬寅十月二十日申時上樑

院長 琴心宅 都監 李重慶 裴憲謨

都木手 讚謙 印潭 軌祥 大機 元聖

引鉅 千三福 金龍大 冶匠 全演三

廟直 朴於叱迷 城上 李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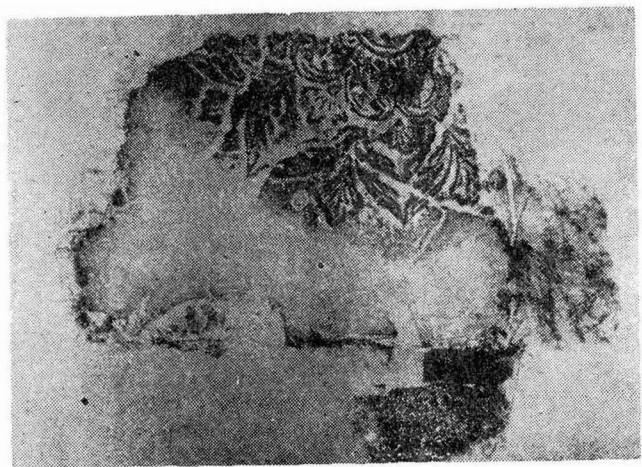


德峰寺址出土方磚

매우 平凡한 上樑記로서 그 글 自體에는 別로 問題가 될 만한 것도 없다. 院長은 書院의 長이며 대개 書院에는 이 院長 밑에 有司 一人을 두었다고 하므로 都監 두 사람은 그 有司들인 것같이 생각된다. 木手 引鉅 冶匠 等 工事關係 技術者들에 對한 名稱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름이고 廟直은 廟祠의 守直, 그리고 城上은 원래는 宮闕內에서 使役하는 下隸를 말한다고 하나 이 곳에서 도역시 그러한 賤役을 맡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以外에는 特別한 것도 없으나 다만 木手들의 이름이 두 자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모두가 중들인 것 같다는 점이 좀 재미있게 느껴질 뿐이다. 이 上樑記와 함께 같은 道理의 一部에 네모나게 판 구멍 속에서 白紙에 쓴 金上樑文이 같이 發見

되었으나 그다지 重要的 文句도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省略하였다. 紹修書院은 누구나 아다싶이 우리나라 賜額書院의 嚆矢로서 高麗名儒 文成公 安珦을 奉祀하고 있다. 그 建立은 近世朝鮮 中宗三七年(一五四二)壬寅에 當時의 豊基郡守 周世鵬이 公의 舊居인 順興 白雲洞에 먼저 祠廟를 일으키고 다음해 다시 그 옆에다가 書院(白雲洞書院)을 세웠다 하며, 그 후 明宗 五年에 李滉의 上言으로 紹修書院의 賜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初期에 建立된 代表的인 書院의 하나로서 그 主要建物에 對한 正確한 年代는 우리나라 書院建築 研究上 매우 貴중한 資料를 提供하게 되므로 이번 上樑記의 發見은 대단히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



龍岩寺址出土綠釉磚